

광주 금호2동 맞춤형복지팀, 취약계층 경제난 해소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 체불
복지재단·교회 통해 도움 요청
4개월 간 노력 끝 650만원 확보

광주광역시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복지재단 및 교회 등이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해 되거 위기에 몰린 한부모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준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서구 금호2동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관내 취약계층의 아파트 관리비 등 밀린 공과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랜드 및 초록우산을 비롯한 복지재단과 분당우리교회, 광주다일교회 등 각종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65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자인 30대 어머니 A씨는 식당 홀서비스 등 일용근로를 하며 자녀 2명을 줄곧 혼자서 키워왔다. 10대 중반인 아들은 자폐성 장애로 세상과 괴리돼있고, 중학생인 딸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화귀난치성질환(메르켈 피부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 질병 치료로 모든 재산이 소진돼 전세 임대료나 아파트 관리비 등 밀린 공과금이 500여만원에 달했다. 탈출구가 없었던 A씨는 지난 2월 중순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선미)는 최근 동장실에서 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관리 공유 간담회를 갖고 관내 취약계층 지원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호2동 제공

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금호2동 맞춤형복지팀은 먼저 초록우산재단의 문을 두드려 자녀들의 돌봄과 교육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랜드 재단에는 LH 전세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 400여만원의 체납된 공과금 변제를 의뢰했다. 재단측은 전세 임대료 2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이랜드 관계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성남시의 분당우리교회에 이 사연을 전달해 밀린 아파트 관리비 200여만원을 해결해줬다.

A씨 딸의 학원비 150만원도 마련됐다. 광주다일교회(서구 풍암동)가 취약

계층 대상 ‘마중물’ 사업 일환으로 50만원을 지원했고, 금호 2동에 사는 한 시민이 좋은 일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해 학원비 150여만원을 모두 조달했다.

임선민 금호2동장은 “금호2동 맞춤형복지팀의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4개월 이상 지속된 대장정이 마침표를 찍었다”며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 한계도 실감했다. 열린 시각과 열정을 갖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중진공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 ‘제1차 HUG 협의체’

은진하이테크 등 지정서 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지난 18일 2025년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 12개사와 지역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2기 HUG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패밀리기업은 은진하이테크, 오이솔루션, 무진기연, 한아, 삼원에스티에스, 에스이, 태현푸드, 케이에스산업안전협회, 예코피스, 와이에이치테크,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엄지식품 등 12개사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테크노파



크 등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도 동참했다. 패밀리기업, 호남연수원, 유관기관 간 협업 및 동반성장(Hug) 의미와 ‘패밀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한다(Hope Ur Growth)’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HUG 협의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결성됐다. 향후 분기별로 개최돼 △호남연

수원 사업 운영방향 수립 △연수과정 기획 △현장 인재양성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참석자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패밀리기업 지정서 수여를 진행해 간담회를 통해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인재양성 요구사항, 기업 현장 분위기, 노하우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경훈 원장은 “HUG 협의체는 연수원과 패밀리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소통 플랫폼”이라며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연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인사

전남교육청 ◇3급 승진 △나주도 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 조정희 △목포대 학교 교육협력관 파견 이계영 △재정과 ◇4급 승진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문선태 △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박민숙 △목 5급 승진 △여수여명학교 성진미



광주 광산소방, 관내 전지공장 화재안전컨설팅 시행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관내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이번 화재안전컨설팅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참사 1주기를 맞아 유사한 전지공장 화재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세방전지(주), 세방리튬배터리(주)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산소방은 배터리 원료 및 완제품

보관상태 점검, 외국인 근로자 화재대피 매뉴얼 숙지 당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안내, 유사 화재 사례 등을 전파했다.

문형재 예방안전과장은 “전지공장과 같은 중점관리대상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관계인의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호남지사, 사업 계통 확대 논의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호남지사는 지난 1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호남제주권역 하나로마트 점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협의회 소속 하나로마트 점장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협경제지주 핵심사업 및 하나로마트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계통 사업을 안내했다. ‘AI를 활용한 마트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실시한 외부 특강에서는 직접 모바일을 통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점장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염동준 호남지사는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유통채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업인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호남지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호남권하나로마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광주본부세관, 6월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은 6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정영덕 주무관, 조해인 주무관을 선정, 포상했다. (사진)

정영덕 주무관은 마약 적발 사례 연구 및 정보분석을 통해 특이 패턴 우범 여행객을 핀셋 선별해 검사 지정했고, 조해인 주무관은 우범도가 높은 항공편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해당 수화물을 집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들은 탁월한 협업을 바탕으로 메트암페타민 3.6kg(12만 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여름 대비 현장 점검

광주광역시 남부경찰 백운지구대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시철도 공사구간, 아파트 공사장, 산사태 우려지역 등 11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이번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오는 것으로 예측되어 일찍 사전 점검에 나섰으며 지하철 공사구간에 대해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가시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구청·소방서등 재난관련 기관과 연계해, 공사 관계자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운지구대는 장마기간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 및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광주대, 호심관 여자 화장실 입구 10곳 ‘안심거울’ 설치

광주대학교는 여성들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지난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협업으로 호심관 1~6층 여자 화장실에 ‘안심거울’ 10개를 설치했다. (사진)

19일 광주대에 따르면 ‘안심거울’은 화장실 출입구에 부착되어 이용자들이

출입 시 후방을 확인할 수 있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시설물로 평가받는다.

학생지원처는 “앞으로도 광주 남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